

미국-이란 갈등은 여전히 부담, 주요국 통화정책회의와 금리 변동성 확대 경계

- 국내 증시는 대외 불확실성에도 반도체 주도력 회복과 반반도체 업종 순환매 확산에 힘입어 강세 전개.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로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미국채 금리도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으나, AI 관련 투자심리가 확대되며 지수 상승 견인
- OpenAI는 신규 모델 GPT-6 아스트라를 공개. 특정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 수준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AGI 도달 가능성이 부각. 높은 성능과 활용성이 토근 사용량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유입되며, AI 인프라 투자 모멘텀도 재차 강화
- TSMC는 8월 매출이 전년 대비 +53.3%, 전월 대비 +10.1% 상승한 5,148억 대만달러를 기록했고, 4개월 연속 매출 상승세를 이어가며 사상 최고치 경신. 견조한 AI 반도체 수요를 재확인하며 관련 업종 투자심리 확대. 엔비디아의 허깅페이스 인수 소식도 AI 수요 기반 확장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며 모멘텀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요인
- 반면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한층 고조.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직후 이란 전쟁이 끝나고 유가 급락할 것이라고 언급. 다만 단기 협상 가능성이 제한적인 만큼 유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며 WTI, 브렌트유 선물 모두 100달러 돌파
- 미국채 금리 상승도 부담 요인으로 상존. 미 재무부는 10~20년 만기 국채 바이백 규모를 60억달러로 3배 확대. 그럼에도 시장 기대치(80~100억달러)를 충족하지 못하며 미국채 금리는 재차 상승했고, 10년물, 30년물 금리는 4.96%, 5.36% 수준까지 레벨업
- 유가, 금리 상승 리스크와 AI 모멘텀의 힘겨루기 반복. 한국 시간 11일 밤 발표되는 미국 8월 CPI가 금융 시장의 단기 방향성을 제시할 것. CPI의 둔화 가능성은 높고, Core CPI는 전년대비 +2.4% 상승하며 연중 최저치를 경신(7월 2.5%)할 것으로 예상. 물가 둔화가 확인될 경우 미국채 금리 안정과 함께 증시의 추가 상승 탄력 강화될 전망
-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9월 FOMC. 8월 CPI에서 둔화가 확인된다면 연준의 추가 긴축 필요성을 낮추며 위험자산 선호심리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 다만 현재 CME FedWatch 기준 9월 FOMC 금리 인상 가능성은 71.14%로 지나친 낙관적 태도는 지양
- 주요국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금리 변동성도 경계. 다음 주 BOJ 금융정책결정회의(9/17~18)와 BOE 통화정책회의(9/20)가 예정된 가운데 BOE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우세한 반면, BOJ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유력. BOJ가 금리를 인상할 경우 엔화 강세와 일본 국채 금리 상승을 통해 주요국 국채 금리 상승 및 엔 캐리 청산 우려를 자극할 수 있어 국내 증시의 단기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될 수 있음. 하지만, 주요국 통화정책 이벤트 통과와 통화정책 불확실성 완화/해소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도 존재
- KOSPI 7,000선 회복에도 불구하고 12개월 선행 PER은 5.56배에 불과. 선행 EPS가 8월말 1,240p에서 1,265p로 레벨업된 영향. 펀더멘털과 밸류에이션 간 괴리가 여전히 큰 상황. AI 모멘텀발 반도체 업종의 주도력 속에 실적대비 저평가 업종(IT하드웨어, IT가전, 소매(유통), 보험, 조선, 자동차 등)들의 순환매로 밸류에이션 정상화 지속 예상

퀀틴전시 플랜 자료는 대신증권
리서치 소속 **퀀트 전략, 시황**
애널리스트의 현재 시장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담아낸 자료입니다.
매일 이슈에 대한 분석과 시장 리뷰,
확인해야 할 데이터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p)

실적대비 고평가 ↑

↓ 실적대비 저평가

■ 12M Fwd NP - 주가 변화율(월간 기준)
■ 12M Fwd NP - 주가 변화율(3개월 기준)

KOSPI
IT하드웨어
IT가전
소매(유통)
식품
조선
반도체
자동차
미디어, 교육
호텔, 레저
음식
소프트웨어
통신서비스
화학
농사, 자원재
에너지
장품, 의료
디스플레이
필수서비스
헬스케어
음식
건강관리
비철, 목재
항공
유틸리티
건설, 건축

Daishin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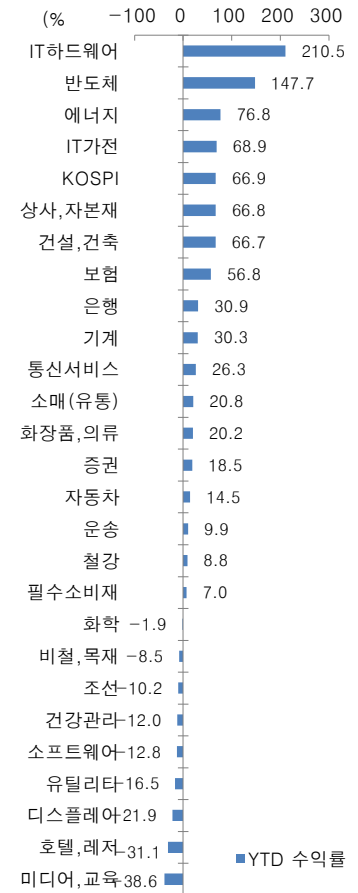
KOSPI, 업종별 수익률 추이

주요 지수	현재가 (p)	등락율(%)						
		1D	1W	1M	3M	6M	12M	YTD
KOSPI	7,034	-0.3	6.9	11.7	-9.0	27.1	112.2	66.9
에너지	8,426	-1.1	9.8	15.2	15.3	31.3	97.6	76.8
화학	4,388	-1.1	0.9	0.7	-9.8	-7.6	13.5	-1.9
비철,목재	6,470	-0.4	-0.3	-0.9	3.5	-22.6	13.8	-8.5
철강	2,362	0.6	0.1	2.3	-5.4	-3.2	12.5	8.8
건설,건축	2,535	0.2	8.8	10.3	6.4	16.9	62.1	66.7
기계	11,672	-2.0	8.7	3.7	-11.1	-0.7	51.7	30.3
조선	7,833	-1.5	3.6	-7.1	-16.5	-19.6	-9.0	-10.2
상사,자본재	5,793	0.9	2.9	-1.4	-6.1	17.4	102.4	66.8
운송	1,938	-0.8	0.0	3.6	12.2	1.0	3.7	9.9
자동차	13,569	0.2	0.2	-8.0	-27.3	-18.4	40.5	14.5
화장품,의류	5,892	-0.8	-5.0	-2.9	4.2	13.0	14.2	20.2
호텔,레저	1,592	0.0	-0.6	-1.1	-15.8	-24.1	-30.2	-31.1
미디어,교육	484	-1.0	-1.7	-5.3	-10.8	-39.7	-34.5	-38.6
소매(유통)	2,435	-0.1	1.5	-5.8	-28.0	6.9	30.9	20.8
필수소비재	7,290	0.4	-4.5	-5.9	-1.7	5.8	4.6	7.0
건강관리	9,311	-1.3	-2.4	-7.3	6.2	-12.3	6.8	-12.0
은행	3,504	0.5	-2.7	2.4	10.5	13.0	39.9	30.9
증권	2,661	0.3	0.4	-2.4	-14.8	-21.9	18.0	18.5
보험	16,288	1.5	-3.4	9.0	-1.2	31.8	57.9	56.8
소프트웨어	6,247	-0.2	-0.4	-4.5	-10.1	-8.7	-13.1	-12.8
IT하드웨어	4,254	-0.4	3.4	7.9	-25.8	137.0	328.8	210.5
반도체	51,474	-0.2	11.6	22.6	-10.2	62.8	348.7	147.7
IT가전	3,128	-1.2	3.0	10.1	0.4	33.6	103.9	68.9
디스플레이	551	0.6	-0.3	-6.9	-27.5	-23.6	-21.9	-21.9
통신서비스	464	-1.3	-0.4	2.7	-10.0	2.3	27.0	26.3
유틸리티	1,134	-1.2	5.4	0.9	-1.8	-22.9	-5.5	-16.5

주: Top 5, Bottom 5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KOSPI, 업종별 YTD 수익률



글로벌 밸류에이션 테이블

권역/국가	P/E			P/B			ROE(%)			12M fwd EPS Revision		
	2026년	2027년	12M fwd	2026년	2027년	12M fwd	2026년	2027년	12M fwd	1W	1M	속도
전세계	18.6	16.0	16.5	3.6	3.2	3.3	19.4	20.0	19.9	1.5	2.9	▲
선진국	20.3	17.7	18.1	3.9	3.5	3.6	19.4	19.9	19.9	1.1	2.3	▲
신흥국	11.6	9.4	9.9	2.2	1.9	2.0	19.3	20.3	20.1	2.9	5.1	▲
북미	22.0	18.9	19.3	5.1	4.5	4.6	23.4	23.6	23.7	1.9	3.3	▲
유럽	15.7	14.3	14.7	2.4	2.3	2.3	15.4	15.8	15.7	0.2	1.4	
퍼시픽	17.5	15.8	16.5	2.0	1.9	1.9	11.6	12.0	11.8	1.5	2.3	▲
라틴	9.9	9.7	9.7	2.0	1.8	1.9	20.3	18.9	19.3	-0.3	0.1	
EM 유럽	10.9	9.7	10.0	1.6	1.4	1.5	14.8	14.9	14.9	0.3	2.5	
EM 아시아	11.8	9.3	9.8	2.3	1.9	2.0	19.7	21.0	20.7	3.5	6.0	▲
선진 시장												
S&P 500	21.9	18.8	19.2	5.3	4.5	4.6	24.0	24.1	24.2	1.5	3.0	▲
NASDAQ	28.0	21.7	22.4	7.0	5.7	5.9	24.9	26.3	26.1	2.2	3.9	▲
프랑스	15.0	13.8	14.1	2.0	1.9	1.9	13.4	13.7	13.6	0.5	0.5	▲
독일	16.3	14.1	14.4	1.9	1.8	1.8	11.6	12.5	12.3	1.3	1.4	▲
영국	13.0	12.3	12.5	2.3	2.1	2.2	17.5	17.3	17.3	0.9	0.4	▲
일본	17.1	15.0	16.0	2.0	1.8	1.9	11.5	12.1	11.8	2.5	4.4	▲
신흥 시장												
중국	11.6	10.2	10.6	1.3	1.2	1.3	11.6	12.0	11.8	1.0	0.9	▲
인도	21.9	18.6	20.1	3.1	2.8	2.9	14.2	14.9	14.6	-0.1	0.9	
한국	6.3	4.6	5.0	2.0	1.5	1.6	32.1	31.9	31.9	2.8	3.3	▲
대만	22.5	17.2	18.3	5.5	4.5	4.7	24.5	25.9	25.6	6.3	8.2	▲
브라질	8.5	8.5	8.5	1.8	1.6	1.7	21.2	19.4	19.8	-0.5	-0.2	

기준일: 2026.09.09

자료: I/B/E/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글로벌 밸류에이션 테이블(Z-Score, ○: 2년 평균 기준, ●: 5년 평균 기준)

권역/국가	PE	Z-Score									
		-2이하	-2 ~ -1.5	-1.5 ~ -1	-1 ~ -0.5	-0.5 ~ 0	0 ~ 0.5	0.5 ~ 1	1 ~ 1.5	1.5 ~ 2	2이상
전세계	16.5	○				●					
선진국	18.1		○				●				
신흥국	9.9	○ ●									
북미	19.3	○				●					
유럽	14.7						○	●			
퍼시픽	16.5							○	●		
라틴	9.7						○	●			
EM 유럽	10.0									○	●
EM 아시아	9.8	○ ●									
S&P 500	19.2	○				●					
NASDAQ	22.4	○	●								
프랑스	14.1				○		●				
독일	14.4						○		●		
영국	12.5						○	●			
일본	16.0						○		●		
중국	10.6				○	●					
인도	20.1			○ ●							
한국	5.0	○ ●									
대만	18.3						○	●			
브라질	8.5						○	●			

기준일: 2026.09.09

자료: I/B/E/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글로벌 주요국 EPS Growth(% YoY)

권역/국가		2026년	2027년	2028년	27-28년 평균
권역(대)	전세계	35.3	16.5	13.8	15.2
	선진국	28.5	14.7	14.8	14.8
	신흥국	74.0	23.9	10.0	16.9
권역(소)	북미	32.8	16.7	16.6	16.6
	유럽	19.8	9.7	10.6	10.2
	퍼시픽	18.8	11.0	9.7	10.3
	라틴	30.7	2.4	8.6	5.5
	EM 유럽	30.2	12.2	11.1	11.7
	EM 아시아	90.3	27.5	10.2	18.8
선진국	S&P 500	33.4	16.6	16.9	16.8
	NASDAQ	60.0	28.7	25.7	27.2
	프랑스	21.9	9.0	10.0	9.5
	독일	8.4	15.8	14.0	14.9
	영국	21.0	5.7	7.9	6.8
	일본	21.0	13.4	11.1	12.2
신흥국	중국	13.8	13.6	12.7	13.2
	인도	10.4	18.2	14.2	16.2
	한국	334.6	36.1	2.9	19.5
	유럽	19.8	9.7	10.6	10.2
	브라질	40.7	0.4	9.5	5.0

기준일: 2026.09.09

자료: I/B/E/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 조 1 항 5 호 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이경민)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